

박지성 또 '골대 불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박지성(25)이 교체 출전해 골대를 맞쳤고 맨유는 2-2로 비겼다.

박지성은 2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뉴캐슬 세인트 제임스파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6~2007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원정경기에 0-1로 뒤지던 전반 36분 교체 투입돼 55분간 그라운드를 질주했다.

맨유는 전반 33분 선제골을 내준 뒤 전반 40분과 후반 1분 폴 스콜스의 연속 골로 역전에 성공했지만 후반 29분 동점골을 허용해 2-2로 비겼다. 맨유는 17승3무2패(승점 54)가 됐다.

웨인 루니-사야 투톱에 좌우 날개로 기스와 호날두를 내세운 맨유는 전반 33분 뉴캐슬 공격수 제임스 밀너의 중거리포 한 방에 선제골을 내줬다.

뉴캐슬전 전반 36분 교체 투입

아쉽게 득점 기회 놓쳐...2-2 비겨

맨유는 전반 36분 사야가 컨디션 난조를 호소하며 교체 요구, 박지성이 대신 투입되면서 공격이 다시 살아났고 해결사는 백전노장 스콜스였다.

스콜스는 전반 40분 기스가 페널티박스 오른쪽에서 내준 볼을 수비수 3명을 따돌리며 아크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 골문을 갈랐다.

전반이 끝날 무렵 박지성에게 골 기회가 찾아왔다. 박지성은 루니가 골 지역 가운데 서 있던 대런 플레처를 보고 넣어준 볼이 수비 맞고 흐르자 골문 정면에서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너무 꺾여져 오른쪽 골포스트를 맞추고 말았다.

박지성은 또 2-2 동점인 상황에서 후반 43분 미드필드 왼쪽에서 호날두의 크로스를 이어받아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공중으로 뜨고 말았다.

이밖에 설기현(27·레딩)은 이날 오전 영국 레딩 마데스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과의 홈경기에서 5-0으로 크게 앞선 후반 25분 교체 투입돼 20여분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레딩은 6-0 대승을 거뒀다.

이영표(29·토트넘)도 같은 시간 열린 포츠머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7경기 연속 선발 풀타임 출전 기록을 이어갔다. 토트넘은 1-1로 비겼다.

한편 영국 스포츠전문매체 '스카이스포츠' 인터넷판은 이날 박지성에게 "분주하게 움직였다(Busy)"라는 평가와 함께 평점 7점을 매겼다.

포츠머스와 원정경기에서 출전한 이영표(29·토트넘)는 "괜찮았다(Okay)"는 평가로 6점을 받았고, 웨스트햄과 홈경기(레딩 6-0 승)에서 후반 교체 투입된 설기현(27·레딩)에게도 '시간이 부족했다(Little Time)'는 평가와 함께 6점이 매겨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왼쪽)이 2일 영국 뉴캐슬 세인트 제임스파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원정경기에서 뉴캐슬의 제임스 밀너를 제치고 상대 골문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소년 축구팀 제주서 담금질

17일 호주·중·日和 초청대회

17세 이하(U-17) 청소년 축구대표팀이 4일 제주도에 모여 새해 한국 축구의 첫 발을 내딛는다.

박경훈(46) 감독이 이끄는 청소년대표팀은 이날부터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담금질을 한 뒤 13일 호주로 출국해 17-20일 호주, 중국, 일본과 4개국 초청대회를 치른다.

박 감독은 "올해 8월 국내에서 열린 세계청소년대회(FIFA U-17 Worldcup Korea)를 앞두고 있어 어깨가 무겁다. 어린 선수들이지만 꾸준히 발을 맞춰와 나름대로 조직력은 탄탄하다. 새해 벽두부터 열리는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안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청소년팀은 호주에서 돌아온 다음 한 주만 쉬고 곧장 유럽으로 다시 전지훈련을 떠난다.

다음 달 스페인 전지훈련에서 스페인, 벨기에 청소년팀과 두 번씩 경기를 하기로 일정을 잡아놓았다.

지난 해 11월 브라질 전지훈련을 다녀왔고 이번에 호주, 스페인까지 갔다면 유럽, 남미, 아시아 팀들과 두루 실전 경험을 쌓게 된다.

청소년팀의 주축은 주성환(광양제철고), 최진수, 임종은(이상 현대고) 등으로 모두 1990~91년생이다. 주성환은 2005년부터 태극마크를 달고 17경기에서 10골을 뽑아냈다. U-17 청소년대표팀은 그동안 도요타컵, 아시아선수권대회 등에 출전해 7승6무4패를 기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제2 박지성 출현 기대' 최다

축구 팬들이 새해에 가장 듣고 싶은 소식 고 싶은 소식으로 제2의 박지성 출현을 꼽았다.

2일 월간 축구전문지 '베스트일레븐(www.besteleven.co.kr)'과 해외 축구전문 사이트 '사커라인(www.soccerline.co.kr)'이 축구 팬 3천295명을 대상으로 '2007년 가장 듣고 싶은 축구 뉴스'를 물어본 결과 '제2, 제3의 박지성이 출현하길 기대한다'는 응답이 35.3%(1천16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47년 만의 아시안컵축구 제패가 20.9%(689명)로 2위, K-리그 역대 최다 관중 돌파가 16.2%(533명)로 3위였다.

K-리그 승강제(업다운 시스템) 정착, 스타 용병의 K-리그 진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및 클럽 월드컵 우승, 20세 이하(U-20) 세계청소년대회 4강 진출, 17세 이하(U-17) 세계청소년대회 성공 개최 등도 팬들이 듣고 싶어하는 뉴스에 들었다.

"부족한 점 많아 유학 결심"

황선홍 코치 유럽행 준비

"지도자를 하면서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황새' 황선홍(39) 전 전남 드래곤즈 코치가 소속팀을 떠나면서 자신의 심정과 앞으로 각오를 밝혔다.

황선홍은 2일 전남 구단 홈페이지에 '감사의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수석 코치로 지난 4년 가까이 여러분의 사랑과 열정을 느꼈다.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지도자를 하면서 부족한 점도 많이 느꼈고 좀 더 배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유학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2006년 전남과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축구 지도자로서 유럽 유학을 준비 중인 그는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

고 돌아오겠다"면서 "우리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을 부탁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2003년 잉글랜드로 15주에 단기 연수를 다녀온 황선홍은 내달에는 국내서 지도자 교육을 받은 뒤 3월 중순 잉글랜드로 연수를 떠나 1년 동안 영어 공부와 함께 체계적으로 축구 교육도 받을 계획이다.

황선홍의 연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이반스포츠의 이영중 대표는 "황선홍이 영어권 국가에서 어학을 배우길 원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한국인이 적은 도시에서 오전에는 영어를 배우고 오후에는 축구 지도자로서 연수를 받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 선수단은 8일 소집해 20일까지 광양에서 기초체력을 키운 뒤 21일부터 중국 톈밍으로 3주간 전지 훈련을 떠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첼시 구단 "히딩크 사령탑에 앉히고 싶다"

네덜란드 '스포츠위크'지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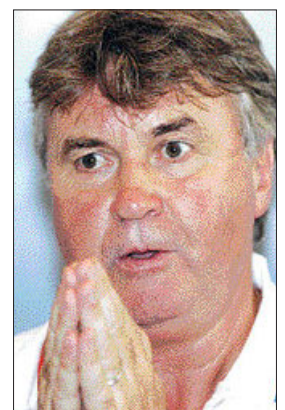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강호 첼시의 구단주인 러시아 석유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거스 히딩크(사진) 러시아 축구대표팀 감독을 다음 시즌부터 첼시 사령탑에 앉히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2일(한국시간) 네덜란드 유력 스포츠지 '스포츠위크' 최신호는 아브라모비치가 히딩크 감독을 다음 시즌 첼시 사령탑으로 영입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보도했다.

'스포츠위크'에 따르면 아브라모비치는 히딩크 감독이 러시아 대표팀과 첼시를 동시에 이끌어 주길 희망하고 있다.

히딩크 감독은 지난해 4월 러시아 대표팀의 사상 첫 외국인 감독으로 선임된 뒤 호주 대표팀을 이끌고 독일 월드컵을 끝난 뒤부터 러시아 축구를 지휘하고 있다.

히딩크 감독의 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약종료



후 2년 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까지 러시아 대표팀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0만 유로에 이르는 히딩크 감독의 연봉은 아브라모비치가 만든 '국가 축구아카데미 재단'에서 지급되고 있다. '스포츠위크'는 아브라모비치가 히딩크 감독이 네덜란드, 호주 등을 감점으로 만들었으며, 특히 2002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을 4강에 올려놓은 점을 높이 사고 있다고 전했다. 또 '첼시의 조세 무리류 감독은 이탈리아 세리에 A 명문 클럽 인터 밀란으로 옮기기를 희망했다'고 덧붙였다.